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8년 표어 §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요 3:16-17, 창 12:3. 마 9:35)

†행동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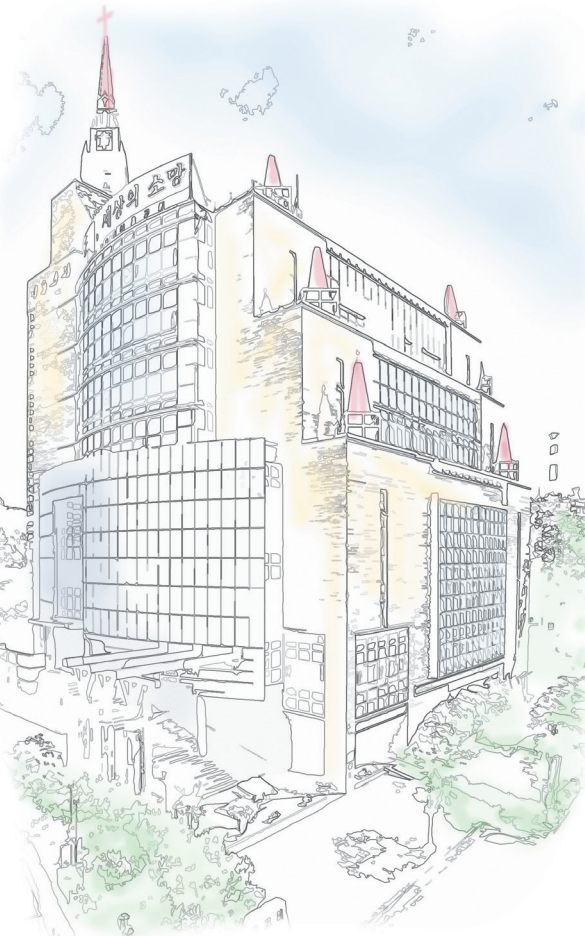
- 1.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거룩한 교회
- 2. 계대를 잇는 믿음의 가정들의 보편적 공동체
- 3.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적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iseoulchurch.or.kr>

 여호수아서 강해

세상에 대항한 라합 I (여호수아 2:1~24)

이종윤 원로목사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은 놀라운 기적이었다. 모세는 이제 열 두 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파견했다. 그 중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 만이 긍정적 보고를 했다.

이번엔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여리고로 정탐을 보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여호수아는 라합이 정탐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리고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 라합이 구원받게 될 것인가에 관심을 두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것은 우물에 물 길러 왔던 한 여인을 구원하려 하심이었다(요4:4).

마찬가지로 두 정탐꾼은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 여리고로 들어간 것이다. 물론 그들은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에 우연이란 없다.

하나님께서서는 라합의 마을에서 이미 일하고 계셨다. 라합을 참 신앙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이 기회에 그 여인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만 믿게 하심으로 영과 육을 구원하신 것이다.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인물 중에는 여호수아가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라합의 신앙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라합을 통해 우리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다. 여리고의 한 기생을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를 보여 주신 것이다.

I.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라합

1. 라합은 이방인이었다

하나님께서서는 모압 여인 룻, 수리아의 나야만 장군 등 이방인 구원을 여러 모양으로 보여 주셨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요 4:22).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언약이 있고, 성전이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특권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라합은 그런 특권이 없는 이방인이었다. 그녀는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이 세상에서는 소망도 하나님도 없었다(엡2:12).

2. 라합은 아모리인이었다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7족 중의 하나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부패했고 비열한 백성이었

다. 아모리 족속은 잘못된 종교를 갖고 있어 자식을 희생 제물로 바치기도 한 우상숭배자들이었다.

3. 라합은 기생(장녀)이었다

라합은 정탐꾼들이 도착하기 전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으며 자신의 옛 생활은 청산한 후였다. 라합이 지붕에 삼대를 말리고 있던 것만 보아도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는 현숙한 여인 잠(31:13) 이요 회개한 성도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생으로 불리웠다.

그것은 그 여인에게 정탐꾼들이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정탐꾼들은 음욕을 품고 그 여인에게 들어간 것은 아니다.

우리도 라합과 다를 것이 없는 비천한 인생들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요 신분이 비천했던 라합도 구원하셨고 우리들도 구원하셨다.

II.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라합은 이방인이요, 아모리 족속이요, 기생 출신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 듣고 마침내 참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롬 10:17).

라합은 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 ② 하나님께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사건, ③ 아모리의 두 왕을 진멸시키신 사건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 라합에게는 선민에게 약속된 양자 됨이나 언약이나 율법, 예배나 축복과 약속은 없었지만 들을 귀가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의 신 일에 대해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다.

라합은 자신이 들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사건을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로만 듣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 듣고 믿음이 생겨 정탐꾼을 도울 수 있었다.

라합은 어떤 면에서 창녀 노릇을 했기 때문에 신분이 비천했지만 비천한 신분이었기 때문에 길손들로부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었다.

창녀 출신 이방인 여인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 듣고 믿었으며 정탐꾼을 도울 수 있었다. 우리들도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 절망해서는 안 된다. 그 어느 누구도 구원의 대열에 서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죄를 삼킬 수 있음을 믿자.

해군 교육사교회 진중 세례식

3.28(수) 해군 교육사령부 교육사 교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 교회 비전 2020 운동본부(본부장 : 최광성 장로)는 오는 3월 28일 (수) 경남 진해 소재 해군 교육사교회에서 진중 세례식을 거행한다.

이 날 총 참석인원은 1,330명, 세례자는 950명 가량으로 예상되며 목사와 장로가 각각 1명씩 팀을 이루어 18개 팀이 세례를 베풀게 된다.

이 날 교회에서 8시에 출발 예정이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바란다.



교회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불법 용역을 고용하여 유리문을 부수고 교회에 난입하여 하나님의 집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박노철 목사는 오히려 우리측 성도들을 예배 방해와 폭력 등으로 무차별 고소 고발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고소 고발은 교회 분쟁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

(명 단)

박광훈 이홍숙 최읍 최현인 공민호 유재영 한길동 신이삭 송재현/선순례 김광민 이미경 윤현기/정미자 감우균/김연화1 김정열 박복순 안인호/이명신 차도훈/남태영 정춘혜 신모란 오천수 이원석 이용자 장은석 김혜영14 전희정 박동우/백승경 홍성미 최근자 홍정란 황보주자 노제현/김정희 박정성 최명남 김광태 박동식/유하영 최낙준 백승갑/박길자 이우태 최형열/김찬진 김미영 3 조경숙 김양경 유준섭 전훈덕 김숙자 최지훈 손순형 스테반회 백경화 이성우 최나래 윤영숙 채해숙 황병석 유슬기 박미현2 박준석 김주엽 길이세/최진경 이상섭 송성태 박승기 안미경 김재경 차영도/정미연 조정욱/홍동기 김선희 김종자/박진희 서명철 김진숙 이남성/최영란 지성철/유묘종 이은희 김은숙 원유현/전성희 나상민 윤종현1

들의 수순이다. 교회의 어려움 가운데서 교회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금을 보내주신 성도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저들은 사람을 의지하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므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채교천/정금희 정복순 김명심 백 훈 황재연 김석봉/박동희 오유식/이봉규 장애순 나기태/오주명 권성자/이만구 임송자 이승래/김정희 손성일 김영숙 한상욱 정완진/김희순 김양숙 최인에 강경아 이병천 김영희/이현정 손명근 신재곤 임우택/김정숙 한인진 박은미 홍성미 곽대수 홍은경/노영환 김은석 정인건/남영주 송미희 양동덕/나미경 조혜영 최미경 류충기 김철수/김서윤 오후근 정철웅 임상헌 이민호/김희 장창수/박혜정 이강진 박동우/백승경 공민호/정윤희 정현구/최복희 송영재/함정희 안승민 최용준 노문환 김광욱 무명13명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찬양예배 전 교회 회복 기도회

지난 주부터 찬양예배 전 4시 30분부터 교회 회복을 위한 기도회로 모입니다.

교회가 불같은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찬양과 기도 뿐입니다. 찬양과 기도는 사탄의 결박을 푸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피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도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유아부, 유초등부 예배가 은혜 중에 진행 되다



사순절 묵상



내 인생에
폭풍이 있었기에
주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가끔 십자가를
지게 해 주셨기에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사랑해 준
사람에게 감사하고
나를 공격해 준
사람에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를 더
너그러운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때때로 가시를 주셔서
잠든 영혼을 깨워 주셨고,
한숨과 눈물도 주셨지만
그것 때문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도
배웠습니다.

실수와 실패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겸손을
배웠습니다.

날마다 평범한
생활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는
지혜를 주소서.

무엇이
생겨서가 아니라,
무엇이 나에게
발생하지 않음을
감사하게 하소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과,
편리한 세월에
태어난 것과,

세어도 세어도
끝이 없는
그 많은 감사를
알게 하소서.

남과 비교하며
살지 말게 하시고,
질투의 화산 속에
들어가지 말게 하시고,

돈을 목적 삼게
하지 마시고,
으뜸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게 하소서.

사랑의 속삭임을
입술에 주시고
감사의 노래를
내 심장에 주소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하게 하옵소서.

불법용역 사태를 바라보며

너는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라!

총회가 교회안에 폭력 사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보여야만 차후에 이런 비극을 되풀이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만약 이런 일을 교회가 용인한다면 그것은 교회 자체의 수치일 뿐만 아니라 또다시 폭력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할 가능성마저 열어주는 것이 된다.

따라서 교회는 교회내에서 폭력을 단호히 배제 시켜야 하고 더구나 목사의 폭력에 대해서 더 엄격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목사가 아주 야비한 방법으로 성도들에 가한 폭력은 씻을수 없는 상처로 남겨졌지만 이번 기회에 환부를 도려내는 고통일지라도 다시는 이런 수치와 기만이 교회내에 자리를 틀수 없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칼빈은 "인간에게 해를 끼치면 하나님에게도 상처를 입힐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우리가 칼빈의 말을 받아들인다면 이웃에게 해를 끼쳐도 하나님의 상처가 이렇진대 하물며 성도들에게 가해진 폭력은 말해 무엇하겠는가!

분명 하나님의 상처는 깊다 하나님의 말씀의 대변자 역할인 목사의 폭력으로 깊고 그것을 정치적 계산으로 유착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또 한번 깊어 지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자 한다면 "경외"의 의미를 잘 살펴야 한다 "경외심(敬畏心)"이란 두려움도 포함한다. "경(敬)"이 그분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라면 "외(畏)"는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반응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분을 경외심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사랑과 공의가 그분에게 가득하다고 인정하는가?

그렇다면 교회는 하루속히 이 비열하고 악랄한 폭력에 대해 방관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독하고 그분의 공의에 반기를 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지 않고 비열한 힘에 기댄 그에게 오직 이 한마디만이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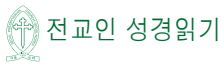
너는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라!

- 불법용역 사태와 불법 장로 임직식을 바라본 어느 청년의 비분강개한 글입니다-



- 위선과 기만 -
불법 장로 임직식에서
양의 탈을 쓴 이리의 거짓 눈물





비옥한 초생달 지역

김동진 집사 (3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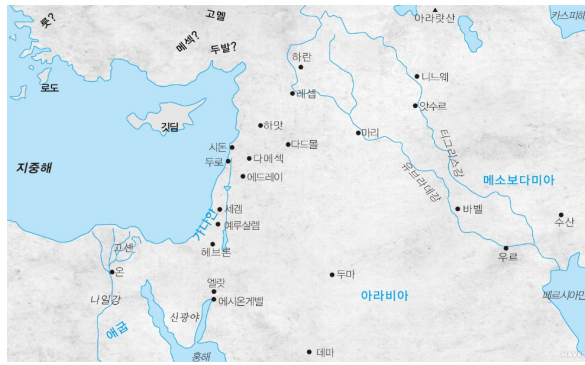
성경과 관련하여 비옥한 초생달 지역은 크게 메소포타미아, 수리아(시리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가나안), 그리고 애굽으로 나눌 수 있다.

1) 메소포타미아 (Mesopotamia)

메소포타미아는 고대 그리스어인 'Meso (중간, 가운데)' 와 'Potamia (강)' 의 합성어로 '강과 강 사이에 있는 지역' 을 가리키는 말로 즉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의 지역을 의미한다.

메소포타미아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듯이 4대 인류 문명의 발생지 중 하나이자 가장 오래 된 문명의 발생지로 이 지역이 최초의 문명 발생지가 된 배경에는 우기에 유프라테스 강이 범람하면서 농사짓기에 적합한 비옥한 땅을 제공하여 예로부터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여 들기 시작하였다.

메소포타미아는 고대 세계사와 성경적 관점에서 크게 세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남부, 중부, 그리고 북부이며 남부 메소포타미아가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로 그곳에 거주하던 수메르족에 의해 발달했던 까닭에 수메르 문명 이라고도 한다.



2) 수리아(시리아) 와 레바논

(1) 수리아(시리아)

수리아는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곳으로 수리아는 헬라 (그리스) 말이고 히브리어로는 성경에서 아람이라고 하고 오늘날 영어로는 시리아라 한다. 수리아는 원래 여러 도시 국가 형태였는데 그 중에서 소바 왕국이 가장 주도적인 도시 국가였으며 이스라엘과는 항상 적대적이었는데 솔로몬 왕 말기에 소바의 왕은 하닷에셀이라는 사람으로 르손이라는 그의 신하가 배반하여 다메섹에서 따로 나라를 세워 수리아 전체를 통합하여 새로운 단일 국가 형태의 수리아 즉 아람 국가를 형성하는데 성

경에서 언급하는 수리아 또는 아람은 모두 다메섹을 수도로 하는 나라를 가리킨다.

다메섹을 수도로 하던 수리아는 한때 북메소포타미아 일대와 이스라엘까지 위협하는 강력한 왕국으로 성장하기도 하였지만 앗수르 제국의 위세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결국은 앗수르의 디글랏빌레셀에 의해 BC 720 년경 멸망되고 말았다. (열왕기하 16: 9)

(2) 레바논

레바논은 성경에서 베니게 즉 페니키아 왕국으로 두 개의 도시국가가 주축을 이루고 있었는데 두로와 시돈이다. 페니키아는 일찍이 해양 국가로 발달하여 해상 중개무역으로 상당한 부를 축적하며 여러 식민지도 두었는데 대표적인 식민지가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이다.

특히 시돈은 바알과 아세라 숭배로 가득 찬 지역으로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결혼한 후 이스라엘에 바알 숭배 신앙을 퍼뜨리는 '바알 선교사' 의 역할을 하였으며 그녀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가 450 명이고 아세라 선지자가 400 명이나 될 정도였다.

(다음 주 계속)

- 전 성도 성경 읽기표 -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3월25일	주일	삿 20-21		시 22-33	
3월26일	월	룻 1-4		시 34-40	
3월27일	화	삼상 1-3		시 41-50	
3월28일	수	삼상 4-8		시 51-65	
3월29일	목	삼상 9-12		시 66-73	
3월30일	금	삼상 13-14		시 74-80	
3월31일	토	삼상 15:1-17:40		시 81-91	

동 정

- 금주의 식사 : 이강인 집사 허숙 권사 가정 (어머니 나오너 권사 생신을 감사드리며)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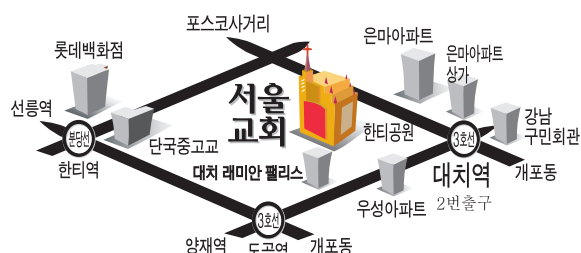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2. 주님의 몸 되신 교회에서 불법 세력이 속히 제거되고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의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서울교회가 되도록
3.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내외 정세에 우리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시어 복음화 된 통일 조국이 속히 오도록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웨스트minster 홀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20분	104 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minster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매일)	인터넷 영상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